ADHD 유아에 대한 일반유아의 성별 상호작용 전략 탐구*

An Inquiry into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s Interaction Strategies with Young Children with ADHD According to Gender*

견주연(Ju Youn Kyun)[1)]
정계숙(Kai Sook Chung)[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teraction strategies used by typically developing boys and girls in their dealings with young children with ADHD in free play situations in inclusive classes. This was done in order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ir interaction strategies. The subjects were 52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comprising 27 boys, 25 girls) and 3 young children with ADH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the overall frequency of interaction strategies with the young children with ADHD was greater among the young female children (n = 372) than the young male children (n = 298). Second, when the utterance strategies of the male and female children were sub-categorized, both the male children (79.5%) and the female children (57.0%) mostly made use of avoidance strategies, one of the typical withdrawal strategies. Third, the interaction strategy of control represented 42.0 percent and as such was identified as the most prevalent interaction strategy utilized by the young male children studied. In the case of the young female children, obliging strategies were the most common interaction strategies representing 33.1 percent of the total used. In the light of the findings yielded from this study, some educational recommendations are provided.

Key Words : 일반유아(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DHD 유아(young children with ADHD), 성차(gender difference), 상호작용 전략(interaction strategy).

---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1)]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2)]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ai Sook Chu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kschung@pusan.ac.kr

Ⅰ. 서 론

2011년 현재, 유아교육기관은 통합교육 체제로 전환되고 있어 일반유아와 장애유아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 및 상호작용의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반유아들과 장애유아들 간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김미정, 최은아, 2007),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특히, 교실 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유아들의 장애유아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양원숙, 2005; Esposito & Peach, 1983; Odom & McEvoy, 1988)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장애유아들 중에는 정서행동 장애아에 포함되는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유아들이 있다. ADHD 유아들의 발달적・행동적 특성은 부주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으로, 이러한 특징이 교실 내 장기간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학급, 친구관계,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이소현・박은혜, 2001; 임원신, 2006) 그로 인해 일반 유아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들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자신들과 다르면 또래들을 따돌리며(Harrist & Bradley, 2003), 장기간 반복되는 ADHD 유아들의 발달적·행동적 특성은 학급의 일반유아들로 하여금 이들을 놀이에 끼워주지 않고 놀리거나 무관심하게 만든다(견주연・정계숙, 2011). 즉, 일반 유아들의 ADHD 유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 및 무시하기, 따돌리기, 회피하기 등의 비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일반유아들과 장애유아들 간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형성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반면, ADHD 유아들은 때때로 일반유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함께 놀고 싶어하며 능동적으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시도하기도 한다(이기현, 2005). 또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며(Robert, 2008),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도 수행해나간다(Stormont, 2001). ADHD 유아들의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에 대해 일반 유아들은 일반 또래에게 하듯이 ADHD 유아에게 다가가거나 도와주거나 협력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고 관계를 맺는 등 여러 사회적 상호작용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상호작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ADHD 유아의 통제되지 않는 충동적 행동이나 과잉행동은 일반 유아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시도와 반응을 제한할 수 있고 일반 또래에게와는 다른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 전략은 크게 친구에게 약 올리기, 명령하기, 반대하기, 저항하기 등을 포함한 통제 전략, 회피, 참여지연, 비참여 등을 포함한 철회 전략, 참여, 정교화하기 등을 포함한 협력 전략 및 같이 놀기, 의견확인 등을 하는 배려 전략으로 나타난다(Leaper, 1991).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 전략은 남아, 여아 간에 성차(Goodwin, 1990, 2001)도 나타나는데 남아의 경우는 통제 전략을, 여아의 경우는 협력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손유진・이연선, 2006), 여아들은 평소 남아보다 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남아들은 단언, 명령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Nakamura, 2001).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남아와 여아 간에 또래와의 상호작용 전략에 성차가 있음이 시사된다.

실제 유아교실에서 유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sex)에 따른 분리된 또래 놀이가 나타나는데(Maltz & Borker, 1982), 이를 뒷받침하는 입장이 분리된 세계 가설(SWH, Separate worlds

hypothesis)이다. SWH 가설은 유아들이 또래 문화를 형성할 때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성(gender)이라는 범주를 사용하며, 여아는 여아와 놀이하고 남아는 남아와 놀이하여 분리된 또래 놀이 문화를 나타낸다(Maltz & Borker, 1982)는 것이다. 그리고 여아와 남아가 경험하는 성 분리(sex separation)는 단지 그들이 참여하는 놀이 및 활동에서의 차이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로 다른 발화 방식에 의해서도 나타나게 된다. Coates(1994)는 여아들은 협력적인 발화 방식을 사용하도록 사회화되는 반면, 남아들은 경쟁적인 발화 방식을 사용하도록 사회화된다고 하였으며, 조재은(2001), 한희정(2005), 이연선과 윤정혜(2006)도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남아와 여아 간 또래 상호작용 전략에 차이가 있다고 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일반유아들의 ADHD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 역시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ADHD 유아는 일반유아들보다 더 많은 부주의, 과잉행동 및 충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므로 그들에 대한 일반 남아와 여아의 상호작용은 일반 또래들에게 사용하는 상호작용 전략 유형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DHD 유아를 통합교육하는 기본 목표가 또래와의 어울림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기질적 특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데 있다(이기현, 2005)고 할 때, 학급의 주류가 되는 일반유아들의 ADHD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반유아들의 ADHD 유아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을 알아봄으로써 유아 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지도 전략을 모색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ADHD 유아와 일반유아 간의 놀이 상황 중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관한 국내연구는 드물고, 이조차도 ADHD 유아의 상호작용 형태 및 친사회적 행동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이기현, 2004, 2005, 2007)이다. 특히 유아의 성에 따른 ADHD 유아와의 상호작용 전략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급의 주류인 일반 남아와 여아들의 ADHD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은 어떤 유형이 얼마나 나타나며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실제를 탐색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유아들의 상호작용 전략에 대한 지도 방법과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수전략 개발과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DHD 유아에 대한 일반 남아와 여아의 상호작용 전략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P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 학급의 14명(남아 8명, 여아 6명)의 일반유아와 ADHD 유아 1명, 만 4세 유아 19명(남아 10명, 여아 9명)과 ADHD 유아 1명, 그리고 만 5세 유아 19명(남아 9명, 여아 10명)과 ADHD 유아 1명으로 총 3학급의 일반유아 52명(남아 27명, 여아 25명)과 ADHD 유아 3명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인 만 3세 일반유아들 중 8명은 1년 이상의 재원생이고 6명은 신입유아들이며, 만 4세~만 5세 일반유아들은 대부분 본 연구 참여기관에서 1년 이상

재원 중인 유아들이다.

ADHD 유아 중 박지호는 부적응 문제로 만 2세반에서 2년 동안 생활하였고, 2010년에 만 3세반으로 진급하였다. 생활연령이 또래보다 1살 많기 때문에 같은 반 유아들보다 체격이 큰 편이고 활동범위도 넓은 편이다. 담임교사의 관찰일지에 의하면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 수준이 낮은 편이고 친구들에게 자주 소리를 지르며 충동적인 행동 및 과잉행동을 자주 보인다고 하였다. 만 4세인 이재환은 담임교사의 관찰일지 및 비형식적인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또래와 비슷한 보통 체격에 식성이 매우 좋은 편이다. 언어발달 수준은 또래와 비슷하나 참을성과 인내력이 부족하고 자아통제 및 감정 조절이 어려워 친구들에게 자주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물건을 던지며,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때리는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하진수는 만 5세로 체격은 또래와 비슷하나 친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경우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거나 교실을 이탈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이 수시로 나타난다고 담임교사가 면담 시 이야기하였다. ADHD 유아들에 대한 자세한 배경정보는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 환경

본 연구 참여기관은 총 12학급 166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7시 30분～오후 3시까지이며,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 참여 학급은 총 3반으로 두 반은 보육시설 1층에, 나머지 한 반은 2층에 위치하였고 교실은 언어, 수・조작, 도서, 블록, 역할놀이, 조형 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는 생활주제에 맞는 교구와 교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꽃잎반, 풀잎반, 하늘반 교사 모두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해!, ～하지마!" 등의 명령, 지시 전략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때로는 "그렇게 하자!" 또는 "선생님이 도와줄게." 등 협력, 배려 전략도 사용하고 있었다. 유아들의 또래 간 상호작용 역시 놀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표 1〉 ADHD 유아들의 배경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급	재원시기	ADHD 진단시기	참여자 특성
박지호	2005년 11월	남	만 3세반 (꽃잎반)	2년 이상	2010년 6월	2남 중 차남으로 형과 본인 모두 병원에서 ADHD 진단을 받은 상태임. 어린이집 부적응 문제로 만 2세 학급에 2년 동안 재원하였으며, 2010년 3월에 만 3세반으로 옮김.
이재환	2005년 3월	남	만 4세반 (풀잎반)	1년 이상	2010년 1월	1남 1녀 중 장남으로, 민간 아동발달상담센터에서 ADHD 진단을 받은 상태임. 심리치료를 받으려다가 여동생이 태어나면서 치료가 연기된 상태임.
하진수	2004년 5월	남	만 5세반 (하늘반)	3년 이상	2009년 4월	1남 1녀 중 장남으로 병원에서 ADHD 진단을 받았음. 의사가 약을 권하였으나 복용하지 않고 민간 아동발달상담센터에서 놀이치료를 8개월 동안 받았음. 방과 후 활동으로 음악치료 수업에 참여 중이며, 2009년 5월부터 음악치료를 받았음.

*반이름과 유아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

나타났으나, 교사와 유사하게 통제, 철회, 협력, 배려 전략 등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었다.

3. 연구절차

1) 연구 사전 승인

본 연구자들은 우선 P시에 있는 유아교육기관 중 ADHD 유아들이 다니는 여러 기관에 전화를 하여 연구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유아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그 중 연구 참여를 승인한 어린이집 1곳이 최종 선정되었다. 그리고 전화로 원장님으로부터 만 3세~만 5세 각 반에 ADHD 유아 1명씩 총 남아 3명이 등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원장님 및 담임교사 3명의 허락을 구하였으며, 관찰 시기를 협의한 후 관찰을 실시하였다. 학부모들에게도 서면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여 동의를 구했으며, 유아들을 평가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밝혔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반 남아와 여아의 ADHD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연구로, 2010년 7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어린이집의 가정학습기간 및 특별한 행사일, 명절 등을 제외한 18주 동안 매주 1~3회씩 관찰이 이루어졌다. 일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오전 실내 자유선택활동을 약 1시간 정도 관찰하였고 연구 기간 동안 실내 공풀장에서 총 3회, 바깥놀이터에서 총 3회씩 각각 약 40분~50분 정도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1학급 당 10회 씩 총 30회 관찰하였다. 실내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관찰 시간으로 정한 이유는 다른 일과 활동 시간에 비해 놀이 선택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언어적 상호작용이 잘 관찰되어 일반 남아와 여아의 ADHD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관찰 장면을 다양화하고 다소 정형화된 교실 공간을 벗어나 자연스러운 장면에서 일반 남아, 여아의 ADHD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을 관찰하기 위해 실내 공풀장과 바깥놀이터에서의 활동 장면을 학급마다 1회씩 총 6회 관찰하였다. 또한 하루일과 중 시간 경과에 따른 상호작용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7월 26일과 8월 5일 이틀은 등원시간부터 하원시간까지 하루 종일 관찰을 하였다.

관찰 초기에는 유아들이 낯선 사람과 캠코더에 대한 관심으로 평소의 상호작용 유형을 보이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학급마다 1회씩 예비관

〈표 2〉 자료수집의 일정

구 분	일 정	자료수집 내용	자료수집 방법
사전 모임	2010년 7월 15일	연구의 목적 소개, 관찰일시 결정, 사전정보 수집 및 친밀감 형성	본 연구에 대한 의견교환
예비 관찰	2010년 7월 16일 - 7월 19일	남아, 여아와 ADHD 유아 간의 상호작용 관찰 및 본 관찰을 위한 정보 수집	비디오 촬영 비형식적 면담
집중 관찰	2010년 7월 20일 - 11월 4일	예비관찰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남아, 여아와 ADHD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집중 관찰함	비디오 촬영 비형식적 면담
추후 관찰	2010년 11월 10일 - 11월 11일	예비관찰과 집중관찰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관찰함	비디오 촬영 비형식적 면담

찰을 하였으며, 유아들과 래포 형성을 한 후 본격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캠코더로 녹화를 하였고 매회 현장에서 관찰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기록 노트를 작성하였다.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기술하기 위하여 관찰이 끝난 즉시 현장 노트와 녹화 기록을 대조하면서 활동내용을 전사하였다. 현장노트에는 일반 남아, 여아와 ADHD 유아의 상호작용 내용, 연구자의 느낌, 의문점 등을 기록하였으며, 남아, 여아의 ADHD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과 관련된 정보 등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의 일정은 표 2와 같다.

3) 교사 면담

교사는 유아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상호교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유아들과 ADHD 유아의 생각이나 상호작용, 놀이진행 과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ADHD 특성을 지닌 유아와 일반 남아, 여아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현상, 의미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위하여 교사들과의 비형식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매회 유아 관찰 시 의문사항을 토대로 질문하였으며, 시간이나 여건 상 면담이 어려울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 질문을 하였다. 전화상담은 각 반 담임교사에게 2번 씩 총 6번 이루어졌으며, 통화시간은 약 20분~4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관찰을 통해 일반 남아, 여아의 ADHD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을 분석한 것으로, 자료 분석은 현장노트에 있는 관찰 기록,

〈표 3〉 남아와 여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 분석틀 및 예시

		통제(control)	협력(collaborate)
영향 influence	직접적 (direct)	• ADHD 유아를 무시, 약올리기 예) 에이, 멍청아!, 바보야! • ADHD 유아에게 명령하기 예) 그거 만지지 마라. • ADHD 유아와 대면하기 예)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다. • ADHD 유아에게 저항하기 예) 근데? 뭐… 어때서?	• 서로의 놀이에 참여하기 예) 니랑 같이 놀고 싶다. • 건설적으로 정교화하기 예) 내가 도와줄께 • 연합 행동 주도하기 예) 우리 블록 같이 쌓자. • 상황을 주의 깊게 설명하기 예) 여긴 주유소야. 저긴 병원이고…
		철회(withdraw)	배려(oblige)
	간접적 (non-direct)	• ADHD 유아 회피하기 예) 아~~ 또 소리 지르네… • 참여 지연하기 예) 음~~ • 마지못해 복종하기 예) (퉁명한 어투로) 그렇게 하던지… • 비참여 예) 긴 침묵이 흐름	• ADHD 유아의 의견 들어주고 같이 놀기 예) 그래. 같이 하자. • ADHD 유아의 의견 물어보기(정보요청) 예) 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 ADHD 유아의 기꺼이 복종하기 예) 난 괜찮아. 그렇게 하자. • 도움을 요청하기 예) 좀 도와줄래?
		거리두기(distancing)	관계맺기(affiliative)
	참여하기 involvement		

녹화자료, 교사 인터뷰와 전화 통화 자료 및 유아들과의 비구조화된 면담 자료를 주자료로 하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자유놀이 시간 중에 일화기록 및 생활기록부 등은 보조자료로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유아들이 자유놀이 동안 사용한 상호작용 전략 유형 및 빈도 분석을 위해 Garvey (1984)가 개발한 언어적 행동 분석틀을 다시 Leaper(1991)가 유아의 성차에 따른 언어행위의 분석을 위해 영향(influence)과 참여(involvement), 두 차원으로 분류한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은 손유진과 이연선(2006)의 연구에서도 사용한 바 있으며, 분석틀 및 관련 예시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영향(influence)이란 발화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정도를 의미하며, 참여(involvement)는 발화가 참여를 하게끔 하거나 참여에 거리를 두게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영향과 참여의 정도에 따라 통제(control)와 협력(collaborate), 철회(withdraw)와 배려(oblige)로 크게 나누어지고 직접적이면서 참여에 거리를 두는 발화는 통제로, 간접적이면서 거리를 두는 것은 철회로 분류되며, 직접적이면서 참여를 하게 하는 발화는 협력으로, 간접적이면서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은 배려로 분류된다.

자유놀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반 남아, 여아와 ADHD 유아의 상호작용 내용을 모두 전사한 후 위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틀에 따라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원이 개별적으로 부호화하였다. 일반 남아와 여아의 ADHD 유아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은 혼잣말을 제외한 상호 간 대화를 중심으로 하되 주분석은 남아와 여아의 ADHD 유아에 대한 발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문장 단위로 끊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호화 과정에서 ADHD 유아에 대한 발화가 아니거나 비언어적인 행동, 교사의 중재 등이 나타나는 상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보조 연구원은 유아교육 전공 석사 학위자이며 어린이집 교사 경력이 5년 이상 된 자로, 자료 분석 이전에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자료 분석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은 후 자료 분석에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일반 남아, 여아의 상호작용 전략 빈도를 확인하는 양화 과정에서는 분석자간 일치도가 .90이 되었을 때 분석을 시작하였으며, 전략 선정 시 어려움이 있는 애매한 발화는 녹화자료를 재확인한 후 상호 검토를 통해 일치도를 높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ADHD 유아에 대한 성별 전체 상호작용의 전략 빈도

남아와 여아의 ADHD 유아에 대한 전체적인 상호작용 전략을 양적 분석한 결과는 표 4

〈표 4〉 유아의 성별 ADHD 유아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별 빈도 및 비율(%)

	남(n = 298)	여(n = 372)	합계(남/여 %)
통제(직접적, 거리두기)	125(42.0)	72(19.3)	197(63.5/36.5)
철회(간접적, 거리두기)	73(24.5)	93(25.0)	166(44.0/56.0)
협력(직접적, 참여하기)	60(20.1)	84(22.6)	144(41.7/58.3)
배려(간접적, 참여하기)	40(13.4)	123(33.1)	163(24.5/75.5)
합계(%)	298(100.0)	372(100.0)	670(100.0)

와 같다.

남아와 여아의 ADHD 유아에 대한 전체 상호작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여아(372개)가 남아(298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놀이 시 ADHD 유아의 일반유아와의 접촉 및 놀이 참여 기회가 남아들보다 여아들과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아들은 전체 발화전략 가운데 통제가 전체의 42.0%(n = 125)로 가장 많은 반면, 여아들은 배려가 전체의 33.1%(n = 123)로 가장 많았다. ADHD 유아에 대한 발화전략 사용 순서는 남아의 경우 통제, 철회, 협력, 배려 순으로 발화 전략을 사용하였고, 여아들은 배려, 철회, 협력, 통제 순으로 발화 전략을 사용하였다. 영향(Influence)과 참여(Involvement)의 두 측면에서 비교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남아들은 직접적이면서 참여에 거리를 두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여아들은 간접적이면서 참여를 하게 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유아의 성 및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별 하위 전략 사용 빈도 및 비율(%)

영향 influence		통제(control)			협력(collaborate)		
	직접적 영향	무시, 약올리기	남	23(18.4)	참여	남	10(16.7)
			여	16(22.2)		여	16(19.0)
		명령	남	51(40.8)	정교화	남	15(25.0)
			여	20(27.8)		여	22(26.2)
		대면(반대)	남	16(12.8)	연합행동	남	20(33.3)
			여	22(30.6)		여	19(22.6)
		저항	남	35(28.0)	상황탐색	남	15(25.0)
			여	14(19.4)		여	27(32.2)
		계	남	125(100.0)	계	남	60(100.0)
			여	72(100.0)		여	84(100.0)
	간접적 영향	철회(withdrawal)			배려(oblige)		
		회피	남	58(79.5)	같이놀기	남	14(35.0)
			여	53(57.0)		여	39(31.7)
		참여지연	남	6(8.2)	정보요청 (의견확인)	남	13(32.5)
			여	17(18.3)		여	37(30.1)
		마지못해 복종	남	6(8.2)	기꺼이 복종	남	5(12.5)
			여	16(17.2)		여	24(19.5)
		비참여	남	3(4.1)	도움추구	남	8(20.0)
			여	7(7.5)		여	23(18.7)
		계	남	73(100.0)	계	남	40(100.0)
			여	93(100.0)		여	123(100.0)
		거리두기(distancing)			관계 맺기(affiliative)		
참여하기 involvement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별 하위 전략에 대한 상대적 비율은 통제의 경우 남아는 63.5%, 여아는 36.5%로 남아가 여아보다 약 2배 정도 많았으며, 철회의 경우 남아는 44.0%, 여아는 56.0%로 여아가 더 많았다. 협력의 경우는 남아 41.7%, 여아 58.3%로 여아가 더 많았으며, 배려의 경우는 남아 24.5%, 여아 75.5%로 여아가 남아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여아가 배려에 관련된 발화 전략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반면 통제 전략은 남아 보다 훨씬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ADHD 유아에 대한 성별 상호작용 유형별 전략 및 특징

ADHD 유아에 대한 일반유아의 성 및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별 하위 전략의 사용 빈도 및 비율을 먼저 표 5에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례로써 전략 사용의 성별 특징을 비교하였다. 즉, ADHD 유아에 대한 일반유아의 성별 상호작용 전략은 성에 따라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과 차이가 두드러지는 전략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1) 가장 많이 사용된 공통의 전략과 성별 특징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아와 여아가 모두 ADHD 유아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한 상호작용 전략은 회피 전략으로 각각 79.5%, 57.0%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유아들이 ADHD 유아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회피 전략이며, 이러한 전략은 남아와 여아 간에 사용 전략의 비율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전략이었다.

그러나 회피 전략이 나타난 구체적인 자유놀이 장면들은 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남아들의 경우는 놀잇감 선점이나 놀잇감 사용 방법 상 의견이 충돌할 경우 ADHD 유아는 소리를 지르거나 과잉행동, 공격성 등을 보였고, 남아들은 이러한 ADHD 유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보고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물론 회피 전략은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전략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시간 경과에 따른 대상 고정화, 즉 ADHD 유아를 회피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 회피 전략을 많이 나타내었다.

(쌓기놀이 영역)
진수 : (민혁이를 보면서 큰 소리로) 야! 그거(블럭) 만지지 마라. 내 꺼다.
민혁 : (퉁명스러운 어투로) 이게 왜 니껀데?
진수 : (또 다시 민혁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내가 먼저 가져갔으니까... 내꺼다.
민혁 : 니께 어디있노? 같이 써야지. 선생님한테 다 말해.
진수 :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보이며) 아~~~~~ 내꺼라 말이다.
민혁 : (옆에 있던 성준이를 바라보며) 하진수, 또 소리지른다. 또 시작이다. 윤성준! 다른 데로 가자. (민혁이와 성준이가 다른 영역으로 감)
(하늘반 비참여관찰. 2010. 8. 5.)

진수는 자신이 먼저 놀잇감을 선점하게 되면 그 놀잇감은 '자신의 것' 또는 '자신만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등 개인주의적인 원칙을 강하게 세워놓고 있다. 민혁이가 '자기 것(놀잇감)'을 가져가려고 하자 진수는 크게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민혁이와 성준이는 다른 영역으로 곧바로 자리를 옮기는 회피 전략을 보였다. 또한 민혁이가 '하진수, 또 소리지른다. 또 시작이다.'라고 한 발화는 평소 진수의 부정적인 행동이 빈번히 발생하여 일반 남아들에게 고정적인 회피의 대상으로 여겨져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ADHD 유아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으로 인하여 일반유아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

기행동과 감정을 통제할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래 지원망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Vandell & Hambree, 1994)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반면 여아들의 회피 전략은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으로 경계를 뚜렷이 지어 집단행동과 함께 나타났다. 즉 집단 내 한 명의 여아가 '우리 ○○랑 놀지 말자!'라는 회피 전략을 시도하면 여아들은 그들만의 끈끈한 소집단을 형성하여 ADHD 유아가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물론 관찰 시 이러한 여아들의 회피 전략은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회피 전략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ADHD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이나 발화 등을 먼저 할 때는 오히려 언제 그랬냐는 듯 함께 놀이도 해 나갔다.

(역할놀이 영역)
진희 : (재환이가 역할놀이 영역에 들어오자) 이재환! 나가라. 우리 지금 선생님 놀이 하고 있잖아.
재환 : (영역별 자신의 이름 스티커를 부치는 판을 가리키며) 나도 부쳤다. 봐라!
진희 : 그래도… 지금 우리 놀고 있잖아.
라영 : 맞다. 나가라!
재환 : (큰 소리로) 싫다.
라영 : (진희와 민숙이를 보고) 야! 우리가 나가자. 재환이 끼워주지 말고.
진희, 민숙 : 그래. (3명의 여아가 모두 역할놀이 영역을 나감)
- 중 략 -
(조형영역)
재환 : (바람개비를 만들고 있는 진희에게) 이진희! 그거 나도 만들어줘.
진희 : 뭐? 이거? 만들어 줄까? (색종이를 가리키며) 무슨 색 할래?
재환 : (진희의 반응에 기쁜 듯 웃으며 파란색 색종이를 들고) 이거.
진희 : 알았다. 잠깐만. (바람개비를 만들어줌)
재환, 진희 : (바람개비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 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면서 서로 웃음)
(풀잎반 비참여관찰. 2010. 9. 9.)

2)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전략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DHD 유아에 대한 남아와 여아의 상호작용 전략은 모든 전략 유형에서 나타났지만, 특징적인 것으로는 남아의 경우 명령 전략(n = 51, 40.8%)과 저항(n = 35, 28.0%)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여아의 경우는 의견 들어주고 같이 놀기(n = 39, 31.7%)와 의견 확인을 위한 정보요청(n = 37, 30.1%) 등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1) 명령과 저항으로 맞서는 남아들

남아의 경우, 회피 전략 다음으로 명령 전략(40.8%)과 저항(28.0%)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 중 명령 전략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깥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있음)
영준 : (일어서서 미끄럼틀을 타려고 하는 재환이를 보고) 야! 이재환. 그렇게 타지 마라.
재환 : (퉁명스러운 어투로) 뭐?
영준 : 일어서서 타면 안된다. 선생님이 그렇게 타지 마라고 했잖아.
재환 : (영준이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일어서서 미끄럼틀을 다시 타려고 함)
영준 : 그렇게 타지마라고!
(풀잎반 비참여관찰. 2010. 9. 30.)

영준이는 재환이의 위험한 행동 즉, 서서 미끄럼틀을 타는 행동에 대해 명령적인 상호작용 전략을 시도하였으나 재환이는 영준이의 말을 무시한 채 다시 바깥놀이 규칙을 어기고 미끄럼틀을 타려고 하였다. 이에 영준이는 재차 재환이의 행동에 대해 '~하지 마라'는 직접적인 명령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남아들은 명령 전략 외에 저항 전략도 많이 표출하였다.

(쌓기놀이 영역)
진수 : (태성이가 큰 블록 위에 작은 블록 하나를 올려놓으려고 하자 큰 소리로) 야! 그거(블럭) 거기 놓는 거 아니다.
태성 : (퉁명스러운 어투로) 뭐?
진수 : (큰 소리로 화가 난 어투로) 거기 놓는 것 아니라고!
태성 : (진수의 어투로 자신도 소리 지르며) 뭐? 어쩌라고? 여기 놓아도 되거든!
(하늘반 비참여관찰. 2010. 10. 21.)

진수와 태성이는 서로 놀잇감(블럭)을 놓는 위치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큰 소리가 오고갔다. 진수가 먼저 태성이에게 "거기 놓는 것 아니라고"라며 소리를 지르자 태성이도 이에 저항하듯 "뭐? 어쩌라고?"라는 반응 전략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일반 남아들은 ADHD 유아에 대해 회피적인 간접적 전략을 많이 사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호소하는 직접적인 명령과 저항 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사례들에서 나타난 일반 남아들의 ADHD 유아에 대한 회피, 명령, 저항 전략 및 약 올리기 전략 등은 교실 내 교사가 잠시 부재할 경우나 미처 유아들의 놀이상황을 보지 못한 경우에 더 빈번히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더 명확해진다.

연구자 : 평소 아이들이 진수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발화를 많이 하나요?
교 사 :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주의를 주거나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하게 되 면 조금 나아지기도 하는데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략- 그나마 여자 친구들 은 진수에게 양보도 하고 또 잘 챙기기도 하는데요, 남자친구들은 더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요. (잠시 후) 며칠 전에 제가 한 번 교실 밖 창문에서 아이들을 지켜본 적이 있는 데요. 아이들이 진수를 따돌리는 듯한 말을 하더라구요. 제가 옆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진수에게 더 잘 해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옆에 없을 때에는 오히려 더 놀리거나 회피하 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 눈치도 많이 보구요.
(하늘반 담임교사 면담. 2010. 8. 5.)

하늘반 교사는 일반 유아들의 ADHD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이 자신들의 놀이상황 주변에 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유무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즉 이는 교사가 옆에 있을 경우에는 교사의 눈치를 보면서 ADHD 유아와 거리를 두기보다 관계를 맺으려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반대 전략인 통제 및 철회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늘반 담임교사에 의하면 거리두기 전략인 통제 및 철회 전략이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빈번히 나타난다고도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표 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2) 의견 들어주고 물어보면서 놀아주는 여아들

여아의 경우, 회피 전략 다음으로 의견 들어주고 같이 놀기(31.7%)와 의견 물어보기 전략(30.1%)을 많이 사용하였다. 즉, 일반 여아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호소하고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 회피하기, 참여를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행동하기 또는 의견 들어주고 같이 놀기, 의견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하기 등의 간접적인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다음은 ADHD 유아의 의견 들어주고 같이 놀기와 의견 물어보기 전략이 함께 나타난 사례들이다.

(쌓기놀이 영역)
지호 : (다연이와 민정이가 쌓기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김다연! 나도 같이 하면 안되나?
다연 : (지호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니도 할래? 그래! 같이 하자.

우리는 지금 억수로(매우) 큰 케이크 만들고 있다. (블럭을 손으로 가리키며) 니도 이거 만들고 싶으면 우리랑 같이 만들자.
지호 : (미소를 지으며) 알았다.
(꽃잎반 비참여관찰. 2010. 9. 2.)

(조형영역에서 수현이와 재환이가 함께 배를 만들고 있음)
재환 : (수현이가 색종이로 꽃을 만들어 배의 측면에 부치려고 하자) 나는 그거 거기에 부치기 싫다.
수현 : (지호를 보고) 그럼, 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디 부치게?
재환 : 나는 그거 말고 이거(막대기 위에 이쑤시개 4개가 붙어있음) 붙이면 좋겠다.
수현 : 그게 뭔데?
재환 : 미사일이다. (막대기를 앞으로 날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슝~~ 나가는 미사일.
수현 : 나는 이게(색종이로 만든 꽃) 더 좋은데…
(잠시 생각하는 듯 가만히 있다가) 알았다. 그거 부쳐라. 어디에 붙일건데?
(풀잎반 비참여관찰. 2010. 10. 7.)

꽃잎반의 경우, 지호가 먼저 다연이와 민정이에게 놀이에 있어서의 가입 승낙을 요청하고, 이에 여아들은 지호에게 "～할래? ～하자!" 등의 의견 들어주고 같이 놀기와 의견 물어보기 전략을 사용하여 놀이 확장을 해나갔다. 이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배려와 협력 등 관계를 맺는 담화전략을 사용하여 발화를 더 길게 한다는 Corsaro와 Eder(199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풀잎반 수현이의 경우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면서 ADHD 유아인 재환이의 바람을 들어주며 놀이상황을 지속해 나가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화를 함에 있어서 더욱 지지적이고 상대방의 발화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며 상호존중을 통해 관계형성에 초점을 둔다(Herbert, 1990; Holmes, 1988)는 연구와 관련이 있다.

이와 더불어 하늘반 민서, 민재, 유미는 유난히 ADHD 유아인 진수와 잦은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특히 의견 들어주고 같이 놀기와 의견 물어보기 등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아이들은 모두 3～4년에 걸쳐 진수와 계속 같은 반에서 생활한 친구라는 점과 모두 여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의 하늘반 교사와의 면담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연구자 : 특별히 진수와 더 잦은 상호작용을 시도하려는 아이들이 있나요?
교 사 : (잠시 생각한 후) 우리 반 아이들 중에 민서나 민재, 유미 같은 아이들은 진수와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진수가 다가오지 않아도 자기들이 먼저 다가가서 진수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진수가 소리도 자주 지르고, 물건을 뺏 는 등의 행동을 보여 장시간 놀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진 않지만요.
연구자 : 그 아이들이 특별히 진수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 사 : 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진수랑 같은 반을 했었거든요. 아 마 그 전의 선생님들이 잘 돌보아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테고, 자신들도 진수랑 놀 아줘야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 아이들이라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구요.
(하늘반 담임교사 면담. 2010. 10. 14.)

한편, 상호작용 유형별 하위 전략 사용 시 비율 상 남아와 여아 간에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 전략 중 하나는 대면 전략이다. 남아의 경우 대면 전략이 12.8%, 여아의 경우 30.6%로 약 18% 정도 상대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많이 사용하는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쌓기놀이 영역)
미나 : (진수가 나무 블럭을 하나 씩 바닥에 던

지자) 하진수! 그렇게 하면 안된다.
진수 : (미나의 말에 아무런 반응없이 나무 블록 2개는 바닥에 던지고 1개는 다른 블록을 맞춤)
미나 : 야! 하진수!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다. 선생님이 블록 바닥에 던지지 마라고 했잖아.
지영 : (미나의 말에 동조하듯) 맞다.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다.
(하늘반 비참여관찰. 2010. 10. 28.)

미나와 지영이는 진수가 나무 블록을 바닥에 던지거나 다른 물건에 던져 맞추려고 하는 대물 공격성을 보이자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다." 라는 대면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통제 전략 중에서도 남아들의 경우는 명령 전략이나 저항 전략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아들은 대면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격성과 같은 ADHD 유아의 비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대면하여 직접적으로 표하는 동시에 공동체 사회에서의 행동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ADHD 유아에게 가르쳐주려는 메시지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DHD 유아에 대한 일반유아의 성별 상호작용 전략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남아와 여아의 ADHD 유아에 대한 전체 상호작용 전략 빈도를 비교해볼 때 여아(n = 372)가 남아(n = 298) 보다 더 많은 상호작용 전략을 보였는데, 연구 참여자 세 학급의 일반 유아의 1명 당 여아는 14.88회, 남아는 11.03회의 상호작용을 주고받아 여아들의 상호작용 빈도가 남아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남아와 여아 간 성차의 결과는 자유놀이 시 일반유아와 ADHD 유아 간의 접촉 및 놀이 참여의 기회가 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남아보다 여아와의 접촉 및 놀이 참여의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남아와 여아 간의 성차는 남아의 경우는 또래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놀이 자체에 더 큰 목적을 두며, 여아의 경우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역할과 놀이규칙을 정하는 등 놀이상황을 지속하고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점(손유진 · 이연선, 2006)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또한 ADHD 유아와 자유놀이를 함께 함에 있어서 돌봄, 모성본능 및 타인과의 관계 형성 등을 중요시 여기는 여아들의 돌봄 윤리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돌봄 윤리는 여성주의 윤리라고 알려져 있을(남명자, 2005) 정도로 여성과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의 참여자인 여아들도 자신들과 다르며, 다른 유아들로부터 자주 거부되는 ADHD 유아를 챙기고 보호하고 관계 형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에 의해 남아들보다 더 많은 상호작용 전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연구결과에서 기술된 하늘반 민서, 민재, 유미에 대한 담임교사와의 면담에서도 나타났듯이 ADHD 유아와 오랜 기간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면서 익숙해진 이들 간의 잦은 상호작용은 여아의 상호작용 전략 사용 빈도가 남아보다 월등히 많이 나타나게 된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남아들은 전체 상호작용 전략 중 통제가 전체의 42.0%로 가장 많았고 여아들은 배려가 전체의 33.1%로 가장 많았으며, ADHD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 사용 순서는 남아의 경우 통제, 철회, 협력, 배려 순으로, 여아의 경우는 배려, 철회, 협력, 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ADHD 유아에 대해 일반 남아들은 통제 전략 중 명령 및 저항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들은 배려 전략 중 의견 들어주고 같이 놀기, 의견확인을 위한 정보요청 등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HD 유아에 대해 일반 남아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호소하는 직접적인 전략을, 여아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호소하고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는 간접적인 전략을 많이 선택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영향(Influence)과 참여(Involvement)의 두 측면에서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남아들은 직접적이면서 참여에 거리를 두는 언어를, 여아들은 간접적이면서 참여를 하게 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남아와 여아의 언어스타일의 차이로,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배려와 협력 등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여 발화를 더 길게 하기 때문(Corsaro & Eder, 1990)일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화를 함에 있어 더욱 지지적이고 상대방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며 상호존중을 통해 관계형성에 초점을 둔다는 Herbert(1990), Holmes(1988)의 연구, 여아가 훨씬 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남아들은 단언, 명령적 전략을 사용한다는 Nakamura(2001)의 연구 및 놀이 상황에서 여아들은 '～하자.'라는 협력적 발화를 더 많이 사용한다(Jefferson, 1984)는 연구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남아들의 장애유아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돕기 위해 현장의 교사들은 여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관계 맺기 전략인 협력 및 배려 전략들을 남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야기나누기 시간 등과 같은 특정한 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일과 내 다양한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일반 남아, 여아 및 ADHD 유아 모두가 관계 맺기 상호작용 전략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남아와 여아의 발화 전략을 하위영역으로 나누어볼 때,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 남아(79.5%)와 여아(57.0%) 모두 ADHD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에 있어서 철회 전략 중 회피 전략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ADHD 유아가 자신을 괴롭히고 소리지르고 때리려는 행동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일반 남아나 여아 모두 ADHD 유아에게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회피 전략도 남아와 여아 간에 성차가 나타났는데, 남아의 경우는 놀잇감의 선점이나 놀잇감의 사용 방법에 관해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ADHD 유아들의 행동적·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이들을 '회피 대상'으로 고정화시킴이 나타났다. 남아들은 놀이 도중에 ADHD 유아를 설득해야 하는 장면에서 그들을 회피 대상으로 고정화함으로써 손쉽게 회피 전략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아들은 '우리'라는 소집단을 형성하여 집단적 따돌림으로서의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여아들이 '우리'라는 연대의식을 통해 관계를 강조하고 우정적 속성(강인설 · 정계숙, 2008)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또한 여아들의 회피 전략은 남아와 달리 상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회피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남아보다 전반적인 상호작용 빈도가 높았던 점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주기도 한다. 지금도 통합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유아들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으나, 앞으로 남아들의 이러한 행동 경향에 대해 더욱 주의깊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ADHD 유아에 대한 일반 남아와 여아의 상호작용 전략 특성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직교사들은 유아들만의 또래 문

화 형성 시 사용되는 언어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교사의 교수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하며, 상호작용 현상에 있어서 부정적인 전략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사 스스로의 의식적 노력 및 실천적 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서 연구 결과에 나타난 하늘반 교사의 면담에 의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교사가 근거리에 없는 상황에서 일반유아들이 ADHD 유아에 대해 무시하거나 거부하기 또는 회피 전략 등을 포함한 통제 및 철회 전략을 많이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유아들은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을 모방하여 활용할 가능성도 크므로 이에 따른 주의 및 바람직한 모델링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앞으로 ADHD 유아에 대한 현직교사의 상호작용 전략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며,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현율이 낮은 여아를 포함하여 ADHD 유아의 성에 따라 일반 유아 전체 및 남・여아 간 상호작용 행동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합교실 맥락 내에서 일반 남아와 여아의 ADHD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의 특징을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분석 시에 각 학급별 연령과 맥락적 특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차후 이러한 점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된다면 ADHD 유아와 일반 유아간의 상호작용의 특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성별 차이를 통한 바람직한 상호작용 전략에 대한 지도 방법과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수전략 개발에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인설・정계숙(2008). 만 3세 유아의 놀이에 나타난 관계적 공격성 : 사회적 배척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21-50.

견주연・정계숙(2011). 일반유아와 ADHD 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나타난 상호 인식 탐구. **아동교육, 20**(2), 63-84.

김미정・최은아(2007). 통합교실의 자유놀이에서 나타난 장애유아에 대한 일반유아의 인식 및 상호작용 전략.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417-449.

남명자(2005).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나타난 '돌봄' 관계 형성 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손유진・이연선(2006). 자유놀이에서의 남아와 여아의 담화전략 및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269-290.

양원숙(2005). 통합교류 활동이 일반유아 학부모의 통합 교육 인식도 및 일반유아의 장애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기현(2004). 통합학급에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특성을 지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 과정.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4), 121-147.

이기현(2005). 통합학급에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특성을 지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 과정(Ⅱ).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6**(4), 315-342.

이기현(2007). 통합 학급에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특성을 지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 과정(Ⅲ).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1), 1-27.

이소현・박은혜(2001). **장애유아 통합 유치원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이연선・윤정혜(2006).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 유아의 성에 따른 또래 놀이 문화. **유아교육논집, 15**(2),

177-194.

임원신(2006).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조재은(2001). 유아의 성별에 따른 교사의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희정(2005). 유아의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 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Coates, J. (1994). The language of the professions : Discourse and career. In J. Evetts (Ed.), *Woman and career : Themes and issues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pp. 72-86). London : Longman.

Corsaro, W. A., & Eder, D. (1990). Children's peer cultur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197-220.

Esposite, B. G., & Peach, W. J. (1983). Change attitudes of preschool children toward handicapped. *Exceptional Children, 49,* 361-363.

Garvey, C. (1984). *Children's talk.*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dwin, M. (1990). *He-said-she-said : Talk as social organization among black children.* Bloomington, IN : Indiana University Press.

Goodwin, M. (2001). Organizing participation in cross-sex jump ropes : Situation gender differences within longitudinal studies of activities.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34*(1), 75-106.

Harrist, A. W., & Bradley, K. D. (2003). You can't say you can't play : Intervening in the process of social exclusion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2), 185-205.

Herbert, R. K. (1990). Sex-based differences in compliment behavior. *Language in Society, 19*, 201-224.

Holmes, J. (1988). Paying compliment : A sex-preferential positive politeness strategy. *Journal of Pragmatics, 12*(3), 445-465.

Jefferson, G. (1984). On the organization of laughter in talk about troubles. In J. M. Atkinson & J. C. Heritage (Eds.), *Structures of social action : Studies in conversation analysis* (pp. 346-369).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aper, C. (1991). Influence and involvement : Age, gender and partner effects. *Child Development, 62,* 797-811.

Maltz, D. N., & Borker, R. A. (1982). A cultural approach to male-female miscommunication. In J. J. Gumperz (Ed.), *Communication, language and social identity* (pp. 196-216).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kamura, K. (2001). Gender and language in Japanese preschool children.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34*(1), 15-43.

Odom, S. L., & McEvoy, M. (1988). Integration of young children with handicaps and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In S. L. Odom, & M. Karnes (Eds.), *Early interven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with handicaps : An empirical base.* Baltimore, MD : Paul Brookes.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Robert, E. C. (2008). **ADHD의 재능찾기**(이영나 · 우주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 전은 2002년에 출판).

Stormont, M. (2001). Social outcomes of children with AD/HD : Contributing factor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Psychology in the Schools, 38*, 521-531.

Vandell, D. L., & Hambree, S. E. (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rarterly, 40*, 461-477.

2011년 6월 30일 투고, 2011년 9월 7일 수정
2011년 9월 22일 채택